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로 감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신근

“주의 잔에 동참케 하소서”

수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청지기 영성세미나, 저녁 7시, 본당에서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언제나 자비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빗줄기 퍼부으시고, 가난한 심령의 빈 잔을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께서 아들의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거룩한 잔을 내시었다. 우리의 매미론 가슴이 주께서 부어지는 은혜로 적셔지리라! 두려웠던 우리의 영혼이 그의 눈물로 젖어줄 때, 우리는 어두운 죄의 숲을 지나 그의 얼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그의 깃방울이 영혼의 빈 잔에 똑똑 떨어지면, 어느덧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리라! 반드시 십자가에서 쏜 것이 그 사랑이 우리 가슴과 가슴을 잇고, 우리가 함께 그의 잔을 마시므로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을 담담함으로 세상을 덮을 그날이 오리라!”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던 청지기 영성 세미나가

금주 수요일(11일) 저녁부터 시작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인 윌트머(Timothy Z. Wither) 교수는 3일 동안 주의 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다. 수요일 저녁은 주의 잔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며, 목요일 저녁은 주의 잔을 나누는 내용을 통해 전적인 헌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주의 잔을 통해 자산을 돌아봄으로 참된 영적 성장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총현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참된 연합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선한 목자와 양처럼, 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던 때처럼,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아무만지지 않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총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세미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적 충만함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제5차 학습 세례 문답

마태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던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3:16,17).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연합의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선포하시듯,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의 지체됨을 선언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덧입혀지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문답하고 세례를 베푸는 시간은 인간의 예식 그 이상이며, 결코 적당히 배풀어지서는 안될 소중한 순간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랑곳 없이 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가! 진정한 고백과 새로운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학습과 세례에 동참하는 이들이 더욱더 진지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제5차 학습세례식에 임하게 되길 바란다.

주간 총현 편집에 대한 안내

주간총현에서는 편집위원을 통해서 각 면마다 특성을 부여하고 각 분야에 따라 면을 배치하였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함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

- 1면 - 교회의 5대 목표에 따른 주제적인 방향 및 교회 행사
- 2면 - 영아 설교(영아대 대상자 및 선교 언어 준비)
- 3면 - 다음 주일 설교(영아대 대상자 및 선교 언어 준비)
- 4면 - 선교와 전도(지역 내 활동과 광고를 통해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 사업 제시)
- 5면 - 젊은이 공간(전국영광으로 자라는 고등부와 대학부, 청년1부와 청년2부)
- 6면 - 교구면(17개의 교구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삶과 영혼의 각성을 나누는 공간)
- 7면 - 주일학교 공간(학아에서 중등3부, 예비부 등, 기타 모든 주일학교 현상)
- 8면 - 새가족과 광고면

2000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0월 8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강현진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는 (정갑선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 (장해성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10월 15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인식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론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이종대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로)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로)	교구별 장소		
10월 22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녀 찬양예배, 본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릴)		

주간 성경공부, 구역장 영성훈련 휴강
청지기 세미나 기간에만 휴강

청지기 세미나에 모든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간성경공부와 구역장 영성훈련이 휴강한다. 해당되는 성도들은 학교 없도록 숙지하시길 바란다.

- ① 11월(수) 주간성경공부와 구역장 영성훈련
- ② 12월(목) 주간성경공부

장로선출건에 관한
임시공통의회

오늘 찬양예배후 본당에서

목양 필름

나는 무슨 씨앗을 심을까?

이 종 철 (목사, 11교구 지도)

바쁜 일생 속에 어떤 씨앗을 심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줄 안다! 그래서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하지 않았던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또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무슨 씨앗을 심을까? 고민을 해 보았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생각의 씨앗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최악한 생각을 버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열날 될 만한 생각을 품어야 하리라. 그러기 위해 내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본다.

또 한가지는 말의 씨앗이다. 하나님은 복음의 나팔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원하신 것이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마귀를 기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고 은혜 베푸실 말이 몇 단어이던가? 성경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요일3:18)! 그런데 대부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절대 부정적인 말, 남의 말은 하지 말라. 마귀가 좋아할 말은 하지 말라 다짐해 본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잠 25:11).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씨앗을 심어 지극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리라.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이 두 가지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겠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Great Bitterness

(Isaiah 38:16-17)

"Surely it was for my benefit that I suffered such anguish. In your love you kept me from the pit of destruction; you have put all my sins behind your back."

When Hezekiah became deathly sick, he found out from God's prophet, Isaiah, that he was to die very soon. He fervently prayed to the Lord and wept bitterly. God heard his prayer and promised him an additional fifteen years of life. After his illness and recovery, Hezekiah wrote down his prayer to the Lord (see Isa. 38:10-20). This beautiful prayer originated from his experience of great bitterness. It is a truly faithful prayer. It is a prayer from a man whom God renewed and encouraged through His Word. It is a prayer filled with God's glory. Hezekiah's experience of great bitterness relates to all people. When you face terrible situations, you need to pray. Hezekiah prayed in pain with faith. His humble actions brought refreshment, reassurance, comfort, and in the end the appearance of God's great glory.

Tremendous bitterness can be useful. Dreadful situations definitely effect you. From difficulties you can gain a good education because bitterness is useful. Look at the beginning of verse 17, "Lo, for my own welfare I had great bitterness." Who's welfare? Hezekiah experienced great bitterness because of his own welfare. Now, after his dangerous experience with life and death, he has peace. We, too, must confront dangerous situations. Our pride, pressure from the world and strength from other resources constantly threaten us. We need protection because our faith is easily shaken from these things. Hezekiah prayed, "Lo," which means behold. His life absolutely changed. He didn't walk any middle ground. He emphasized the huge physical and spiritual bitterness of his soul, "O Lord, by these things men live, and in all these is the life of my spirit; O restore me to health and let me live" (v. 16)!

When you read the start of verse 15, "What shall I say? For He has spoken to me, and He Himself has done it," you realize how awful the situation appears. But God saved Hezekiah from bitterness, "It is You who has kept my soul from the pit of nothingness. For You have cast all my sins behind Your back" (v. 17). From

nothing God saved his soul. Not only that, but He threw away his sins. Before God removed his sins, Hezekiah repented! He really repented through humble prayer and sincere crying. He confidently prayed, "The Lord will surely save me; So we will play my songs on stringed instruments

You who has kept my soul from the pit of nothingness" (v. 17). God loves your soul. He healed Hezekiah's sickness. He saved his soul. He saved him from the pit of nothingness! Only He can save you from the desolate place of death. No one else can do this. There's no person, place or thing in

situation to perfect peace. Today, God changes you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from a terrible sinner to a holy saint. Jesus takes all your heavy burdens, all your sins! Amen! God does it, "I can't do it, your friends can't do it," only God can do it! He casts behind all your sins. Look at the cross of Calvary. Jesus was the only one crucified for all sin. He doesn't die a thousand deaths for each sin we commit. He died once and for all sin! When we repent, our sins are forgiven and forgotten. At the place of Golgotha, Jesus did it. He completely sacrificed his life for the forgiveness of sin.

My dear brothers, listen to Hezekiah's prayer. Let's have his prayer in our hearts. Let's pray the prayer of Hezekiah during our difficult times. This church has a lot of painful bitterness in it. I believe that Hezekiah's God is the same as my God. He doesn't change. He still loves us strongly. He is with us. He wants to come into our hearts. As the world progresses into the 21st century, technology is forcing all kinds of knowledge, knowledge and more knowledge into our minds. I do believe in an eternal God, Hezekiah's God, David's God, Daniel's God and Joshua's God. He's my God! He is the One who has given His only begotten Son, everything, in order for our sins to be thrown behind. He wants to forgive all who come to Him and repent. Pray to Him. Ask Him. He is complete love. He is perfect righteousness. He is the only One who can give forgiveness, perfect love and perfect peace.

How great is your bitterness? Why don't you compare it to the cross of Calvary? Your bitterness isn't bigger than His. No. No. No. God understands our bitterness. What wonderful blessings we receive in faith. The Holy Spirit wants to stay with us. He uses our tongue. He makes us able to pray to the Lord if we humbly listen to Him. Don't complain while you have bitterness, just pray. It is worth it! Amen!

*But God saved Hezekiah from bitterness,
"It is You who has kept my soul
from the pit of nothingness, For You have cast all my
sins behind Your back" (v. 17).*

*From nothing God saved his soul. Not only that,
but He threw away his sins.*

*Before God removed his sins, Hezekiah repented!
He really repented through humble*

*prayer and sincere crying. He confidently prayed,
"The Lord will surely save me;*

*So we will play my songs on stringed instruments
All the days of our life at the house*

*of the Lord" (v. 20)! Without doubt, Hezekiah
received salvation. He was saved from death.*

*Oh, how true it is when peace returns
within our hearts that praises to the Lord come back.*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are you drinking from a bitter cup? You will have
restoration if you sincerely pray.*

All the days of our life at the house of the Lord" (v. 20)! Without doubt, Hezekiah received salvation. He was saved from death. Oh, how true it is when peace returns within our hearts that praises to the Lord come back.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are you drinking from a bitter cup? You will have restoration if you sincerely pray. God's saving hands will touch you!

No matter how bad or awful your situation, when you pray God loves you. He is a lover of salvation. "It is

this world out of this world, or around this world that can save you from death. God's love isn't unreal, it is practiced and consistently acted out. He made Hezekiah free. He forgave him. He gave him new life. Amen!

God changed people perfectly. He threw all of Hezekiah's sins behind His back.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that God completely forgave Hezekiah. Hezekiah became a righteous man from a terrible sinner. God changed him from a terrible



김 성 목 사

고통에 대한 기도

(사38:16,17)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질병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

히스기야가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스럽게 울며 강렬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에게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의 병이 회복된 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기도를 기록하였습니다(사38:10-20). 그가 겪은 커다란 고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였습니 다. 그의 기도는 정말 신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 격려함을 받은 사람의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커다란 고통의 경험은 모든 사람과 관계됩니다. 여러분이 끔찍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결단한 행동은 새로운 활력, 새로운 확신,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통 뒤에 감추인 참된 평화

무서운 고통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일들로부터 여러분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고통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누구의 평안입니까? 히스기야는 겪은 커다란 고통은 그 자신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위험한 경험을 한 지금,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란, 세상으로부터의 압력, 그리고 다른 권원으로부터의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보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다른 중도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커다란 고통을 강요하였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생명의 생명이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16절).

듣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는 15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고백을 대하게 될 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전개되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통

다. 그는 멸망으로부터 그를 건지셨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향량한 사랑의 골짜기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

는 죄를 위하여 친 번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once)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나 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죄의 용서를 위하여 완전하게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의 자비로우심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하십시오. 그는 변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21세기를 지나가고, 과학 기술은 다양한 지식의 홍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히스기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독재자를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던져 버리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는 완전한 의로우십니다. 그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신 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심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큼니까? 왜 갈보리의 십자가와 비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은 그가 겪으신 고통보다 작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는 우리를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동안 평행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에는 많은 상처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17절).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건지셨을 뿐 아니라, 히스기야의 죄를 멀리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는 소멸되었고, 히스기야는 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겸손한 기도와 겸손한 부르짖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17절).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건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마음 안에 평화가 새롭게 임할 때, 그것은 얼마나 참된 일인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통의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만일 신실하게 기도를 드린다면, 회복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질 것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최악의 끔찍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17절).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어떤 자에게 있든지 불가능하며, 또는 이 세상에 속해있거나, 이 세상으로 말미암거나, 그리고 이 세상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흉내내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재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셨으며,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직하나님만이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죄를 그의 뒤로 멀리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히스기야를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끔찍한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상황에서 완전한 평화로움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모든 무기를 집과 모든 죄를 짊어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고, 여러분의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로 던지십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우생가 예수’

‘우생가 예수’는 ‘예수님 찬양’이라는
로반다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께서 2년 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르완다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걸려 선교사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추방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비자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비자를 받는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큰 벽으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던 비자 문제가 어렵고 생이 무너지듯이 해결되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형제들과 함께 영어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의 공부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알파벳을 하면서 C는 GOD이라고 가르치며 I와 연결시키면서 GOD IS LOVE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매우 재미있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자고 했는데 이들이 알려서 매일 오는 것을 보면서 열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조로 고백할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부타레 국립대학

르완다의 유일한 대학으로 부타레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니다. 이 대학 외에는 몇몇의 기술전문대학이 있을 뿐입니다. 부타레 국립대학을 나오면 이곳에서는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르완다 곳곳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됩니다. 부타레 대학의 학생들은 총 5천명 정도 되며, 4천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기숙사생활로 인해 정적인 문란이 이 대학에 만연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기의 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AIDS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대학 내에는 현재 GBU(우리나라의 IVF), CCC, FREIND OF JESUS 등이 기독교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는 이단들이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 물론고, 제칠일 안식교, 그리고 무슬림... 저희가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면 이들의 방해와 압박이 심해질리라 예상됩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타레 대학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나라, 르완다

하나님께서서 저희에게 르완다를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곳은 1994년에 일어났던 동족간의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르완다는 파파와 고아가 즐비한 나라입니다. 식민지 국가였던 영향으로 주일에 교회나 성당으로 가는 사람들의 줄이 길가에 길게 늘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천이거나 가족을 잃은 상처와 분노를 깊이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 고통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긴 고통이란 보편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치유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즉, 형제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르완다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 캠퍼스 사역

저희는 부타레 국립대학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현재 참석하는 학생은 약 25명 정도인데 이들이 많을 안에

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 중에 캠퍼스와 르완다를 가슴에 품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강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 허용구 선교사 드림

선교기도회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를 위해 모세와 아론, 훌은 기도했으며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각 선교지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혹은 잊고 계시지는 않지요?

선교지의 영적 기록을 변화시킬 기도회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00. 10. 10(화) 오후 6시 30분-9시

대상: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선교연구원(LMTC)생,

선교도림팀 지원자, 선교관심사 외

장소: 만나홀, 베다니홀

선교지에 성탄 선물 보내기

선교위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 하여 각 선교지에 성탄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선교사역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격려하며 위로하고자 성탄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탄선물을 모집하고 있으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간: 10월 1일~10월 31일
2. 권장물품: 1) 된장, 고추장, 라면 등의 식품류 2) 의류 및 신발류(사이즈는 선교위원회로 문의) 3) 물품 선택 및 구입이 어려울 경우 선교사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현금, 4) 변질 또는 파손될 위험이 있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은 제한합니다.
3. 문의: 선교위원회

NMC 성가병원 전도팀

주님의 선물을 가진 자와 없는 자



NMC 성가병원 전도대 활동을 하면서 매우 화요일 나는 국립의료원으로 찬양과 전도를 하러 간다. 병원에 가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같이 나와서 찬양하는 환자 분도 계시고 복도를 지나시면서 따라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지만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화를 내시거나 언짢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신다. 똑같은 찬양소리를 들으면서 누군 찬양하는 게 평온함을 얻지만 누군 그 소리를 단지 소음으로 생각하는 현실을 접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전도를 하러 병실에 들어가 보면 또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분들과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나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분은 예전에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갖고 계시다가 버린 분이다. 요즘 8층에서 매주 만나는 분이, 폐암에 걸린 환자 분이신데 젊었을 때 10년 동안 교회에 나가시다가 7년 전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소용없는 이야기라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교회에 참석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그 환자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서 계시면 조금은 아삭한 마음이 들지만 그와 단처하기도 하지만 아쩔 수 없는 현실에 기도만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환자 분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잊어버린 분들을 만날 때면 내마가 후시 저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이고 있지만 처음 그랬던 예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깨닫지 못하여 내 마음속에는 내 모습이 생 각이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 분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런 불만만 마음보다는 환자 분이 예수님을 향해 달아나는 마음 뿐이더라고 싶은 마음이 더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7개월을 15 장에 나가는 잊어버린 양을 되찾은 이야기처럼 그 환자 분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물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병원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336장이 있다. 다 음의 1절 가사가 8층에 그 환자 분께서 이 찬양이 내 간증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얻이나 곧 들어와 나의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마음 봉사자의 기원

깊이로 진리로 생명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작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저희 속사람이

푸른 나무와 같이 계속 자라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건강을 주장하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저희 모두의 작은 힘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17교구 유재춘 권사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중 어떤 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종종 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시간을 보내는 일도 있다. 우선은 나쁘지 그리고야. 지금까지 22년을 살았고, 우선 23년째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쁜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때로는 죽기 보다 더 하기 싫었던 일을 겪으며 보내왔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내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다.

99년 11월 군대에 입대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래도 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곳이었기에 조금은 덜 했는지도 모르겠다. 군대란 곳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 그리고 너무나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아야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부여잡고서 이래저고 고생하면서 꿈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상상했다. 물론 또 하나의 도전이고 내가 이겨내야 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이라는 점에서는 이득이 되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다른 생각들과 마음들을 주셨다. 내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다. 군대에 와서 참으로 많은 것

박 교 상 (대학부 4학년)

들을 변화하게 하셨다. 나의 특기가 '헌병' 이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주일에도 근무와 훈련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난 예배를 포기한 셈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내전 신력의 여지라곤 없었으니까, 그렇게 되자 조금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예배를 삶으로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배에 대한 갈망함으로 내가 살고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들을 예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서 나와서 분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게는 그런 모습보다는 짧은 순간이지만, 찬양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예배로 드리고자 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배를 '떡막하다', '지루하다', '예배는 이래야 한다' 라고 말을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그것들은 많은부분 우리의 느낌에 의존한 말이 많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말씀에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단 2가지이다. '신령'과 '진정' 두 가지가 있는 예배라면 형식과 모습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대체 뭘 드리는지 조금은 의문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이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그 중에 나는 시간을 택하고 싶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귀한 것임은 분명하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은 삶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진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수 만 평

글·그림/김병현



감사와 기대 그리고 기도

류 기 석 (대학부 3학년)

대 학부에 올라와 조장을 하게 되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장을 하면서 수없이 깨지고, 혼들리고, 방황하며 조장으로서 바로 서지 못했던 일도 많았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장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보지 못한 것은 자신에 대한 부족함이었다. 왜 나는 저 조장에 대한 수 없을까? 왜 나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이러한 고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 더 지치고 연약하게 만들었다. 말씀은 보며 되게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모르는 죄책감으로 성경을 바라 볼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숨이 막히고 고동소리였다. 그래서 점점 말씀은 보지 않게 되었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교회도 조금씩 빠지게 되었고, 내게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두세달이 지나자 마침내 삶의 의욕을 잃기 시작했다. 기대가 없는 삶이 점점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씩 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날 이끌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날 변화시켜 주셨

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을 그분께서 나처럼 하나니 내게 주시는 것이었다. 난 기도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나누길 원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분께서 내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로서 기다렸다. 마치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들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린이들이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감사를하는 삶으로 변해갔다. 날 위해 항상 이벤트들 준비하시는 하나님. 삶 곳곳에서 간섭하시는, 나를 불드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은 감사와 기대, 그리고 기도가 중심이 되었다.

감사와 기대, 이 두 단어는 날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과 믿을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살아가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즉,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나의 나뉜 것은"

이 민 욱 (대학부 4학년)

중 시 에수를 믿지 않았다면 난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다. 내가 만약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난 이런 생각을 끝날 하곤 하는데 한마디 말로 요약된다. Oh, my God!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여러 있다. 만약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면 카운셀러가 되거나 컨설터, 혹은 심리학자가 될 것이고, 나쁜 쪽으로 발전한다면 그야말로 바랄 잡는 제마나, 회대의 사기꾼, 사 이비 교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남들보다 잔머리 굴리는 실력으로 인정한다). 아마도 후자의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생각해보면 난 이 유는 내가 워낙 사악한 녀석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분의 생각을 내전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말이다. "난 내가 돌보지 않은 정감이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 줄테니 내가 돌볼 수 밖에 없다. 예후~" 이랬을 하나님은 일찍까지(초등학교 6학년 때) 나의 본모습을 보이시고 깊이 개하는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게 하였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려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은 정말 주의 은혜였다. 그

리고 그 때의 은혜는 내 성격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지금의 내 성격은 정말 많이 변화된 모습이다.

이런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도 남김 없이 드러내는 찬양이 있다. 다용의 찬양인데, 찬양의 제목은 '나의 나뉜 것은'이다. 이 찬양은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막 나가다 실컷해서 힘들어 하고 있을 때 한 신배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잘 기억하고 힘내라고 알려준 찬양이다.

이 찬양은 내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내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게 하는 찬양인 반면, 한없이 무너져 내리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는 지금의 그 모습까지도 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든 위와 함께 더 망가지지 않음을 감사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찬양이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 고백으로 나를 인도한다. 그것은 바로 감사.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정말 마음으로 느끼는 감사이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울고 웃는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혹은 기뻐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그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13교구 가양 1,2구역(3지역)

사랑으로 나누는 구역

구역장 : 박송준 목사 / 인도 : 이경옥 집사



11시가 되자 준비찬송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심방한 내용들을 보고하고 나누기 시작했다. 주로 한 자들과 이산한 사람들, 타구역으로 파견한 구역역사들에 대해 나눴다. 그리고 심방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다. 특히, 멀리 이사가 참사를 못하게 될 이유주 성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아라움을 나눴다. 기도 후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유주 성도를 하나님과 멀지 않도록 인도할지 의논했다. 이제 구역을 떠나게 될 한

생명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마음이 아를 닮았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이 여러말을 서로 위로하라' 구역원들은 곧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 서로 위로할 한 삶을 나눴다. 구역원들의 서로 위로하는 모습은 가족이라 착각할 만큼이나 진실하고 진정된 마음으로 행해졌다. 특히 인도자의 말씀 후에 박송준 권사님의 간증은 큰 은혜가 되었다. 젊은 시절 제림의 소망을 갖게 됐던 사연과 제림의 소망을 갖게 된 후 서로 위로했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했다. 젊은 시절 제림의 소망을 갖게 됐던 사연과 제림의 소망을 갖게 된 후 서로 위로했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했다. 젊은 시절 제림의 소망을 갖게 됐던 사연과 제림의 소망을 갖게 된 후 서로 위로했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했다.

이였다. 기사가 볼때 이미 황성화되고 있는 구역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욕심이 구역 기도체제를 구역활성화를 올리고 기도했다. 특히 인도자 한 명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 전체가 참여하는 구역모임이어서 더 사랑이 느껴졌다. 13교구 3지역의 황성화를 위해 기도한다.

(권요섭 기자)

나온자 천국갈순 없잖아요

무더웠던 지난 여름의 시원한 이야기

여름수련회를 막 끝내고 집에 돌아와 더위를 식히고 있을 때였다. 한통의 전화가 부상으로부터 왔다. "저 김옥연입니다. 연락하기 힘드네요. 다른게 아니고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김옥연씨는 내과방동 무관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였다. 평소처럼 건강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백혈병이 발병하여 병원에 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수치가 오를 때까지 무관실에 입원해 있었다. 자기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우리 순천향 병원 전도팀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는 날에도 남편을 통해 건강하고 싶다고 하니까 복음을 걸어왔으며 목사님의 심방을 받은 그녀는 유언 비슷하게 자기가 죽으면 목사님에게 부탁한다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전했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되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신앙인으로서의 내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부산집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내려가자 전 교회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도움을 청해 왔다. 몸이 열이 있어 외출을 만류하는 의사들을 뒤로 한채 말에 몸을 겨우 의지하여 우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움을 느낄 수 있었다. 3개월을 병원에서 죽어오르던 그녀를 우리는 우리와 같비탕 한그릇을 맞히게 비우고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왔다. 그런 그녀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더욱 감사한다. 저는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건강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어 너무 기쁘다고. 전으로 보여지는 그녀의 모습은 이 세상 부와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을 법한 그런 모습이였다. 그러나 그런 삶속에서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녀에게 고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시다.

(순천향병원 전도팀)

따뜻한 이야기 - 12교구

구역예배 가는 길

새벽은 구역장님으로부터 몇분의 전화를 받고서야 금요일 아침을 약속했다. "대체서 마을버스 타고 경복 아파트 맞은 편 정거장에서 내려주세요, 그곳에서 만납니다." 초가을의 아침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만남의 장소로 향했다. 키가 큰 중년 여성의 힘찬 발걸음이 그녀를 향하고 있다. "○○○자매님이지요? 저예요, 전화드렸던 구역장, 집사 ○○○이예요." "네에...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갑시다" 한 젊은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아니, 담이 엄마, 담이 아니야? 담이 잘 있었어?" "담이 집사님께 인사해야지요."

"안녕하세요"

구역장님은 엄마와 아이에게 새대를 소개하시며 인사 나누게 하신다.

내 명의 일행은 나란히 걸으며 구역예배를 드릴 장소로 향한다. 얼마 가지 않아,

"아이들이 일찍 커버서 대학생이고 군대가고 나니... 애들 없었던 등짝이 허전해. 담이야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힘드셔서 안돼요, 참" "아니, 등에 애들 좀 업고 싶어, 출치, 담이" 아이는 집사님의 등에 훌쩍 뛰어 올랐다. 집사님은 더 기운이 난 듯 매고 있던 가방을 엄마에게 넘기고 씩씩하게 걸어가신다. 그러면서도 담과 새 식구에게 계속해서 관심있는 말을 건네신다.

일주일 만만, 이른들의 무심한 습관으로 드러지는 구역예배를 상상했던 새벽은 이 젊은 동행길에서 늘 신선하고 새로운 금요일 아침을 기대하는 설렘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현혜원 기자)

내 입의 찬송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찬양합시다

김정운 (집사, 4교구)



뒤흔찬 돌덩이와 같은 저였습니다. 교회라는 향기로온 곳에 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찬송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먼저 묻은 성경, 찬송을 들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때에 저에게 찬송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제 부족한 부분을 펼쳐보이시며 깨끗이 닦아 주시고 싸매주시며 회개게 하셨습니다. 저를 유리관 속에 넣고 흰회 보시는 것 같은 그분 앞에 언더러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말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눈에 뿌인 안개를 걷어주시고 새로운 피조세계를 보여주시며 천지만물이 주님의 기쁨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홀로 찬송왕이실 분이시며 미있는 지화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내 구원의 잔을 들고 기쁨 떠나 슬픔 떠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리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반 친구들에게

너희들 요즘 하늘 봤니? 파란색이 무척 곱고 깨끗하고 푸르르지? 선생님도 너무 예뻐서 한참을 쳐다봤단다. 이 파란 하늘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너희들은 잘 알고 있겠지? 그래, 우리 하나님에서, 얼마나 멋지지? 애들이 너희들도 학교가면서 친구들과 놀다가도 가끔씩 하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길 바란다.

지난주, 너희들이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마음이 아팠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루는 모습을 보셨다면, 아마 무척이나 슬퍼하셨을 거야.

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껴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렇지? 선생님도 너희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할게, 우리,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애들이-

유연부 1학년 2과 4반
강지영 선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식탁

윤 속자 (소년부 교사)

처음 만난 아이들은 조용하고 진지하게 성경공부를 끝냈고 우리의 1년은 순조로울 것 같았다. 난 너무 좋은 아이들과 공부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신출내기 선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너무 귀한 아이들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 그러나 조용하던 아이들은 한 주 두 주 지나며 나와 친밀도를 만 것파 장난으로 표시했고 나의 목소리는 거기에 비례하여 커지기 일쑤였다. 그래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지면 행동을 자제하며 말씀을 듣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한지.

침없이 보인던 아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죽음에 대해 얘기하자 진지해졌다. 죽은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해 보이는가? 문자 불가해보인다고 고백하였다. 그렇지만 각자의 아이들인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을 얘기하자 툭툭 툭툭한 눈으로 도전 받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하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인하여 그 구원에 감사하여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하자 자주 늦던 친구가 졸린 눈으로라도 제 시간에 나오는 것을 보며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전도한 친구와 학교에서 싸워서 같이 교회 가자는 말까지 싫다고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자이니 먼저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예쁜 눈을 축복하 적시며 웃는 친구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아닌지, 만 것파는 친구에게 공부하게 조용히 하라며 싸울 뻔했던 친구의 열심 (물론 늦게 끝났고와 염려한 이유도 조금은 있었지만...) , 고통받기 때문에 한 학기가 지나서 이제야 나오게 된 친구가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하며 사도들의 사역은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것은 사도들 속에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며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임을 설명하자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처음 시작할 땐 무엇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양의 목자되신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뿐 아니라 나에게도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하셨다.

때를 따라 말씀과 먹이시는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할 기회를 갖게 하고 아이들의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

올보 하나님

이다 술 (소년부 소망2반)

나는 올보는 아니다
그래도 가끔 온다
이유는 친구 때문에, 혼난 것 때문에,
그래도 올보는 아니다

어른들도 우신다
이유는 직장 때문에
그래도 올보는 아니다

내 친구들도 온다
이유는 사랑, 아파서
하지만 올보는 아니다

모두가 울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유없이 울지는 않는다
이유가 많아서 온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이유로 매일 우신다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춘천소년원 신촌중학교를 다녀와서

홍경화 (중등3부)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비가 무슬무슬 내리는 아침까지도 갈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 같이 가지 못하고 저 혼자 4월5일동안 외딴곳에서 지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것보다도 4월5일의 백백하고 힘든 일정과 춘천의 짙은 듯한 더위를 알기에 더 망설였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박양원 전도사님의 전화를 받고서야 짐을 싸고 교외로 갔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짙은 듯한 날씨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시간에는 못하는 만주도 해야 했고 간식도 나눠서 각방에 넣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많이 힘들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많이 했고 다른 선생님들이 일을 시킬 때면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더 힘든 건 예배시간이었습니다. 방방시설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예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주로 들어가 있던 생활관은 나은 편입니다. 형방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잠시 기다리며 생활하는 가위탁방은 찬양대 연습실의 반경도밖에 되지 않은 좁은 곳에서 50명이 쪼그리고 들어앉아 매대의 선공기로 맘을 식혀야 했으니 말입니다. 상상이 안가지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오빠들은 볼품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문득 중등3부 예배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여름에는 추울 정도로 방방시설이 잡혀있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볼품만 하는 모습을, 그곳에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조차 감사할 줄 모르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모습이 너무 추해보였기 때문입니다.

신촌중학교를 다녀와서 많은 것들이 감자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3부 여러분, 한 번쯤은 이곳은 환경에서 볼품만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주세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혼자인

그리움

인듯 서치가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늘

을 바라보기 좋은 날들이 다가

오며 사람들은 무언가를 그리워

하는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 그리움은 알 수 없는 그리움의 실체를 짙어 없는 사람들은 막연한 남다른 사람의 그리움을 채워줄 것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으로 때론 그리움이 주는 고통과 외로움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고자 사람의 온기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예전의 가을은 나그네 예외가 아니라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시원 바람이 서려온 했다.

그런 가을이 또 다가왔는데 우연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자리를 마다하고 낙향하면서 남겼다는 '그레고리'의 실고를 읽게 되었다. '이 콘 노고로부터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는 사막, 시골의 삶, 제 하나님을 주십시오. 그분만을 나는 기쁘게 하여야 하고, 나의 단순한 삶을 통하여 그분을 기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교회에 고백을 전합니다.' 그는 고통이 아닌 고통을 사랑했다. 그가 이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떠난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위해서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성삼위 일체의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그 기쁨만이 그를 졸졸히 채워주는 영의 양식이었다. 나의 그리움의 영원한 대상은 주님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나의 신앙 대상 주님 이제 나는 서늘한 공기가 스미는 새벽에 일어나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시간을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나의 그리움의 자리에 진정한 주인인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자 한다.

(염정섭 기자)

